



설교자를 위한 시편 해석의 방향

서명수(협성대)

1. 들어가는 말

시편은 성경 안에서도 매우 독특한 성격의 책이다. 성경은 궁극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시편은 '아래에서 위로 들려진 사람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 하나님의 영감 어린 말씀의 시이면서 동시에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시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시'(theopoetry)인 것이다. 이 시편은 초기 기독교 이후 줄곧 매우 중요한 문헌으로 인식되었다. 종교개혁 이전에는 어거스틴과 제롬이, 종교 개혁기에는 여러 개혁자들이 시편에서 강력한 힘과 영감을 얻었다. 루터는 시편을 "한 권의 작은 성경"으로, 칼빈은 "영혼의 해부학"으로 부른 바 있다.

시편은 교회와 신자들의 신앙생활에서도 매우 유용하고 유익한 책으

www.kci.go.kr

로 활용되고 있다. 시편 구절은 ‘예배로의 부름’에서 낭독본문으로, 예배인도자와 회중 사이의 교독문으로, 각종 찬양의 가사로, CD에 담긴 목소리 고운 아나운서의 낭독용 본문으로, 일일 묵상용 본문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렇듯 시편은 기독교 예배의 표준적 문헌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가까이에 있는 성경 중의 성경이다.

그렇지만 실제 목회자의 설교와 관련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유용도에 미치지 못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상대적으로 빈약한 시편의 서사성(narrativity) 때문일 것이다. 이야기 신학과 이야기 설교에 관한 관심의 고조로 인해 설교메뉴(Preaching Menu)에서 시편이 제외되는 경향이 생겨나게 되었다.¹⁾ 따라서 다른 관점에서 시편을 설교 메뉴에 올려놓는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소고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예비적 고찰로 설교의 구약성서적 근거와 설교전승에 대해 간략히 개관한 후 설교자가 설교 준비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시편 읽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의 견해와 강조점은 시적 언어와 침묵의 관계, 그리고 ‘맥을 따라가는 케도적 접근’에 주어지나, 이를 위해 특정 시편을 세밀히 분석하여 제시하는 예증(illustration)은 생략한다. 그 이유는 본 소고는 포괄적 전망에서 설교자를 위한 유효한 시편 해석의 방법을 검토하고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2. 설교의 성서적 근거와 전승

설교의 성서적 근거와 기원에 관한 견해는 다양하다. 홀랜드(Dewitte T. Holland)는 예언자적 설교(prophetic preaching)와 예전적 설교

1) J. 클린턴 맥캔 주니어/제임스 C. 하우엘, 「시편설교-예배 신학 실제」(김윤규 옮김), (서울: 동연, 2012), 24. 원제는 J. C. McCann Jr./James C. Howell, *Preaching the Psalms* (Nashville: Abingdon Press, 2001).

(liturgical preaching)로 구분하고 예언적 설교의 시기적 범위를 확대 소급하여 노아(“의의 설교자”)와 모세(“바로에게 메시지를 전한 설교자”)에게서, 예전적 설교의 출발은 아론에게서 찾는다. 그는 예전적 설교는 제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법계를 빼앗기고, 제사장인 타락한 이후에는 예전적 설교 전승은 점차 약화되고 예언자적 설교 전승이 보다 부각되기에 이르렀다고 본다.²⁾ 그런가 하면 브릴리오스(Y. Brilioth)는 여호수아의 고별연설에서 설교의 시초를 찾고자 했다. 그는 사사, 제사장, 예언자들의 자유로운 언어 구사에 의한, 역사적 상황을 전제한, 회중을 향한 영적 위로와 각성, 그리고 선포를 구약시대 설교의 핵심 내용으로 보았다.³⁾ 레빈(Levine)은 계시와 영감에서 오는 말씀의 증언뿐만 아니라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되풀이하는 말씀의 역사화에 주목하고, 의식(rite)이나 희생(sacrifice), 예전적 규범을 넘어서는 자유로운 예언자적 전통은 구별된 특정 공간이 아닌 열린 공간으로서 장마당(market place)에서 주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하였다.⁴⁾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또 하나의 설교전승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의 예언자들(cultic prophets)의 설교전승이다. 예전적 설교와 예

2) Dewitte T. Holland, *The Preaching Tradition* (Nashville: Abingdon Press, 1980), 13. 예언적 설교의 시기적 범위를 노아시대까지 확대 적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 노아 이야기(창6-9장)에서 노아의 언설행위(act of speech)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홍수 이후 만취사건과 관련하여 노아가 자식들(가나안과 셈)에게 한 저주와 축복의 발언이 있을 뿐인데(창9:25-27), 여기에는 설교적 요소나 성격은 전혀 들어있지 않다. 그러므로 예언적 설교의 범위를 노아시대로 소급하는 것은 성서적 근거가 부족한 무리한 주장이라 할 수 있다. 예언적 설교의 출발을 모세에게서 찾은 것은 나름 충분한 성서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주장이라 할 수 있다. 신명기는 모세가 모압평지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다음 세대를 위해 역사적 회고 형식 속에 준세 번의 설교적 연설(신1:1-4; 4:3; 4:44-5:21; 29-30)이 핵심을 이루며, 참예언자와 거짓예언자에 관한 분명한 언급과 더불어 모세가 예언자의 원형으로 제시되어 있다(신18: 9-22).

3) Yngve Brilioth, *A Brief History of Preaching* (Philadelphia: Fortress, 1965), 2-3.

4) Raphael H. Levine, "Preaching in the Jewish Tradition," Ralph G. Turnbull(ed.), *Baker's Dictionary of Practical Theology* (Grand Rapids, Michigan: Baker Books, 1967), 31. 은준관, 「실천적 교회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255-256 참조. 구약시대의 예언자를 설교자로 파악하고, 예언자적 전통에서 설교자가 배워야 할 점에 대해 논한 것을 위해서는 왕대일/이성민, 「구약설교 패러다임: 구약학자의 설교이해, 설교학자의 구약해석」, (서울: 감신대성서학연구소, 2002), 33-39를 보라.

언자적 설교를 너무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고대 이스라엘의 예언사는 엄연히 제의 예언자들이 존재했음을 말해준다. 20세기 초중반 예언서 연구의 경향은 주로 예언자들의 윤리적 가르침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예언의 제의적 측면이 소홀히 취급되었다. 이러한 연구 경향과는 달리 모빙켈(Mowinckel)은 예언의 제의적 측면과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제사장의 역할을 희생제사적인(sacrificial) 것과 예전적인(sacramental) 것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희생적 역할은 회중과 백성들의 헌물(offerings), 기도(prayer), 탄원(laments) 등에 내포된 염원을 대변하여 하나님께 전달하는 언행들(actions and words)을 의미하며, 예전적 역할은 축도, 기도에 대한 응답, 성별의 말들을 통해 회중과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볼 때 제사장은 제의를 통해 중재자로서 제의 예언자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⁵⁾

모빙켈은 앞선 세대인 궁켈(Gunkel)의 양식분류를 따르긴 했지만
 6) 역시 시편 연구에 있어 기념비적이라 할 수 있는 저서를 남긴 그는 시

-
- 5) Sigmund Mowinckel, "Cult and Prophecy", David L. Petersen(ed.), *Prophecy in Israel: Search for an Identity*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7), 76. 제의 영역에서의 예언자의 활동에 관한 논의를 위해서는 H. H. Rowley, *Worship in Ancient Israel* (London: SPCK, 1967), 144-175; J. W. Ahlström, "Some Remarks on Prophets and Cult", J. C. Rylaarsdam(ed.), *Transitions in Biblical Scholarship*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8), 113-129; Robert Murray, "Prophecy and the Cult", Richard Coggins(ed.), *Israel's Prophetic Tra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200-216을 보라. 활동에 제의적 요소가 포함되었던 초기 예언자인 선견자의 전통은 아모스 시대에도 존속했던 것으로 보인다(암7:12). 이에 관한 상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Hans M. Barstad, *The Religious Polemics of Amos* (Leiden: E.J. Brill, 1984)를 보라.
- 6) H. Gunkel, *Die Psalme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892). 이 저서는 T. M. Horner에 의해 영역되었다. *The Psalms: A Form-Critical Introduction* (Macon, GA: Mercer University Press, 1967). 모빙켈은 1908년 기센(Gissen)대학에서 궁켈의 지도를 받았으며, 그의 충실한 제자로 스승의 학문적 업적을 계승하려 노력하는 가운데 자기만의 업적을 남기게 되었다. 궁켈과 모빙켈의 학문적 관계에 대해서는 R. E. Clements, *One Hundred Years of Old Testament Interpretation*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6), 76-95를 보라. 우리말 번역으로는 「구약성서 해석사-벨하우젠 이후 100년」(문동학 강성열 옮김), (서울: 나눔사, 1988), 141-172를 보라.

편에서 제의 예언자들의 목소리를 감지하였다. 제의 신탁(cult oracle)과 성전 예언자들, 시편 시인들(psalms)과 예루살렘 성전과의 관계, 고대 중동의 제의 진승과 제왕즉위시(Enthronement Psalms)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주목하였다.⁷⁾

3. 설교자에게 유용한 시편해석의 방향들

1) 양식 분류에 따른 해석

시편을 양식/장르(Gattung)에 따라 분류하여 해석한 학자는 궁켈(Johannes Heinrich Hermann Gunkel)이다. 비록 그가 그런 분류를 한 최초의 학자는 아니지만, 그로 인해 하나의 확고한 방법론으로 자리 잡았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는 대부분의 시편의 양식은 “제의에서의 특별한 상황(a particular situation in the cult)”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다. 같은 양식의 시들은 아이디어와 태도를 공유하고, 공통적인 언설형태(form of speech)를 가지고 있으며, 내용과 형식이 불가분리의 관계 속에 결합되어 있는 특징을 보인다.⁸⁾ 그는 시편의 시들을 찬양시, 아웨 즉위시, 탄원시, 제왕시, 감사시 등으로 분류하였고, 세부양식으로 저주와 축복시, 순례자의 노래, 승리의 노래, 토라시 등으로 분류하였

7) Sigmund Mowinckel, *The Psalms in Israel's Worship* (trans. D.P. AP-Thomas), (New York Nashville: Abingdon Press, 1962). 주로 아웨의 왕권을 찬양하고, 아웨의 즉위를 노래한 시편 93-100편은 시편 제4권(90-106)에 들어있는데, 시편 제1~2권이 다윗 왕조의 계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제3권은 다윗 왕조에 대한 아웨의 거절을, 제4~5권은 다윗 왕조에서 아웨의 신정으로 강조점이 옮겨간다고 볼 때 제4권은 시편 편집의 중심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G. Wilson, *The Editing of the Hebrew Psalter* (Chico: Scholars Press, 1985), 215; 이은애, “시93-100편의 아웨-왕 찬양시의 구조와 역할”, 「구약논단」 제33집(2009), 67.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시편의 제의적 활용에 관한 논의를 위해서는 A. B. Johnson, *The Cult Prophet and Israel's Psalmody*(Cardiff: University of Wales Press, 1979)를 보라.

8) John H. Hayes (ed.), *Dictionary of Biblical Interpretation* (Nashville: Abingdon Press, 1999), 472-473.

다. 궁궐의 양식분류는 이후 시편 연구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쳐 지금도 직간접적으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도해(圖解)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1990년 이후에는 시편 연구의 무게 중심에서 점차 밀려나고 있는 추세이다.⁹⁾

양식(장르)에 따른 분류의 장점은 개별 시들의 성격을 보다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시가 어떤 삶의 자리(Sitz im Leben)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파악하기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자칫 도식적일 수 있으며, 한 편의 시 안에 다양한 양식적 요소가 혼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 하나의 양식으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양식적 분류는 시편의 전체를 조감하고 상당수의 시들을 효과적으로 분류하여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교 준비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¹⁰⁾

2) 주제적 접근에 따른 해석

신학적 주제에 따라 시편의 시들을 분류하여 해석하는 방법론이다. 예를 들어, 왕과 메시아(예수 그리스도), 죄와 회개, 고난(십자가)과 구원, 감사와 천국과 같은 주제를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본문으로 시편을 활용하여 풀어나가는 방식이다.¹¹⁾ 이러한 주제적 접근은 신약성서

9) 김태경, "시편연구사-1990년 이후 현재까지-", 「구약논단」 제53집(2014), 325.

10) 궁궐 식의 양식 분류에 입각한 150편 전체에 대한 분류를 위해서는 Bernhard W. Anderson, *Out of the Depths: The Psalms Speak for Us Today*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4), 173-177; 우리말 번역본으로는 「시편의 깊은 세계」(노희원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204-210을 보라. 박종수는 「성서적 설교의 이론과 실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에서 "설교가는 시편의 여러 유형들이 지닌 특징을 살펴면서 그것을 설교에 활용해야 한다"(227)고 강조하고 있다.

11) 개신교 스콜라학파는 종교개혁자들의 교리체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성서본문을 증빙자료("Proof-text")로 사용하였다. 이들은 주로 교리적 주제(예를 들어 벨랑히톤의 24개의 교리적 주제)에 맞추어 성경을 선별적으로 읽었는데, 경직된 주제적 접근은 이러한 경향의 문제점을 답습할 소지가 있다. 개신교 스콜라학파의 성서 해석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는 프레드릭 C. 프루스너, 「구약성서신학사」, (장일선 옮김), (서울: 나눔사,

의 주제와 연결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평신도들에게 선명하고도 매력적인 접근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 성서해석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시편 자체의 입장이나 관점보다는 후대의 관점을 덧씌우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또는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나올 듯하다.

후대의 주제와 연결시키지 않고 해석자가 자기 나름의 주제적 틀을 설정하여 그 틀에 맞추어 전체를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브루그만(Brueggemann)은 정향(orientation) - 반정향(disorientation) - 재정향(Reorientation)이라는 주제적 전개를 설정하고 그 안에 양식적 분류에 따른 시들을 배속시켜 신학적으로 읽고 있다.¹²⁾ 브루그만의 이러한 시도는 거시적인 틀로 미시적인 것을 포착하려는 데서 비롯되는 단점을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양식적 분류를 활용하면서 시편 전체를 삼제적(三題的 triadic)으로 파악한 점은 설교자에게 유익한 통찰력을 제공해 줄 것으로 보인다.

3) 시편의 통일성에 따른 해석

시편은 150편의 시를 모아놓은 시선집이다. 시인이 자신의 생애나 시적 탐구의 궤적에 따라 몇 부로 나누어 성격에 맞는 시들을 배열하고

1991), 28-36을 보라. 최근에는 교리적 주제가 아닌 성서 내적 주제에 초점을 맞춘 주제적 접근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 경우는 전자와 분명히 구별된다. 새로운 의미의 주제적 접근에 관해서는 Sandra L. Garvett et al, *An Introduction to the Hebrew Bible: A Thematic Approach* (Louisville, Kentucky: WJK Press, 2008); Robin Routledge, *Old Testament Theology: A Thematic Approach* (Westmont IL: InterVarsity Press, 2013)을 보라. 크니림(Rolf P. Knierim)은 명시적으로 주제적 접근을 표방하지는 않지만 이슈(issue) 또는 토픽(topic)의 관점에서 구약신학의 과제를 새롭게 논한 바 있다. 그의 *The Task of Old Testament Theology: Substance, Method, and Cases*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1995)를 보라.

12) W. Brueggemann, "Psalms and the Life of Faith: A Suggested Typology of Function", *JSOT* 17 (1980), 3-32; 같은 이, *Praying the Psalms* (Winona, Minn.: Saint Mary's Press, 1993), 그는 정향(定向)의 범주에 창조시, 토라시, 지혜시 등을, 반정향의 시편에 탄식시와 일곱 개의 참회시 등을, 새로운 재정향의 시편에 감사시와 찬양시 등을 배속시켜 성찰하고 있다.

묶어내듯이 공동체에 의해 다섯 권으로 편찬된 시편은 각기 고유한 색깔과 내용을 담고 있는 수많은 개별적인 시들로 채워져 있으나 구조적 통일성의 갖추고 있다. 시편 연구사에서 이러한 통일성, 즉 ‘한 권의 책’으로 읽기에 대한 관심은 그다지 오래된 것은 아니다.¹³⁾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편 각 권의 구성과 시편 전체의 구성 및 구조 속에 담긴 신학적 메시지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런 다음에 각 권 속에 들어 있는 개별 시들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성서해석의 대전제인, ‘부분은 전체의 빛 아래, 전체는 부분의 조명을 받아’라는 정신에도 부합하게 된다.

그러나 시편 전체에 대한 거시적 이해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막상 제한된 범위의 본문을 설교본문으로 정하고 설교를 준비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개별 시들의 양식(장르)적 특징과 시적 정조(情調)의 변화 등에 대한 이해는 새로운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한 권의 책으로 읽는 시편’은 부분적 이해에 있어서는 그 망(綱)이 너무 성글어 포착되지 않는 요소들이 많은 단점을 안고 있으며, 제한된 범위의 본문(pericope)을 정하고 설교를 준비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직접 활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런 고충에도 불구하고 시편 전체의 구조와 그 구조에 담긴 편집의도와 신학을 파악하는 데는 매우 효과적이고 유용한 접근으로 평가된다.

13) 오경을 염두에 두고 편찬된 다섯 권의 책으로 구성된 시편을 한 권의 책으로 읽으려는 시도, 즉 시편의 구성적 통일성을 찾으려는 시도를 위해서는 다음의 책들을 보라, Gerald H. Wilson, *윳글*; Klaus Seybold & Erich Zenger(eds.), *Neue Wege der Psalmenforschung* (Freiburg New York: Herder, 1994); E. Zenger, *The Composition of the Book of Psalms* (Leuven Walpole, MA: Peeters, 2010); 박경철, 「한 권으로 읽는 구약성서, ‘삶의 자리’(Stiz im Leben)에서 ‘책의 자리’(Sitz im Buch)로!-구약성서, 그 최종형태의 새로운 신학적 의미」(오산: 한신대학교출판부, 2010); 왕대일, 「시편사색, 시편 한 권으로 읽기」(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3); 김창대, 「한 권으로 꿰뚫는 시편」, (서울: IVP, 2015). 이환진은 시편 각 권이 송영으로 끝을 맺으며, 시편 안에 오경과 지혜문학의 요소가 두루 들어있는 점을 들어 시편을 통전적으로 읽고 있다. “시편 속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다. 그의 시편의 구성과 그 주제”, 「신학과 세계」, 봄호(2017), 7-57을 보라.

4) 역사적 서사와의 조응(照應)에 따른 해석

구약성서에는 이야기의 맥락(narrative contexts) 안에서 이해해야 할 시들이 다수 들어 있는데(한나의 노래, 삼상2:1-10; 승리의 노래, 출 15:1-21; 모세의 노래, 신32:1-43; 드보라의 노래, 삿5; 다윗의 감사기도, 삼하22; 히스기야의 시, 사38:9-20; 요나의 시, 온2:3-10; 다니엘의 찬양, 단2:20-23; 레위인의 메들리, 대상16:8-36, 등), 이 시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서사의 맥락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¹⁴⁾ 시편은 표면적으로 볼 때 여러 시들을 모아놓은 시선집(anthology)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서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거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시편의 서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건과 전승을 상기시키는 시들은 원시적 형태의 서사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¹⁵⁾ 예를 들어 78편과 106편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난 죄와 심판,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웅장한 시적 에피소드(poetic episode) 형식으로 노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시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사화 된 역사적 맥락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시적 구성과 표현 등 시적 특징을 이해해야 한다.

둘째, 시편의 구성 자체가 고도의 신학적 성찰의 결과이며, 역사적 맥락 안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오경과 견주어 다섯 권으로 편찬하고, 각 권 안에 신학적 의도를 담아 시들을 배열하고, 각 권의 종결부에 공식적인 송영(doxology)을 배치한 것은 그 자체가 시편의 시적 서사성(poetic narrativity)에 대해 증거라 할 수 있다. 시편은 아브라함이나 모세가 아닌 왕국시대부터 시작하여 바빌론 포로기를 거쳐 유대공동체로 다시 거듭나기까지의 역사를 시로

14) 이에 관한 상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James W. Watts, *Psalm and Story: Inset Hymns in Hebrew Narrative* (Sheffield: JSOT Press, 1992)를 보라.

15) Robert Alter, *The Art of Biblical Poetry* (New York: Basic Books, 1985), 25.

쓴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¹⁶⁾

따라서 시편을 설교본문으로 삼고 설교를 준비할 때 설교자는 이야기 속의 시들(“Inset Hymns in Hebrew Narrative”)을 해석할 때처럼 역사적 서사의 배경 속에서 본문을 읽어야 한다. 동시에 시 안에 스며들어 있는 시적 서사성에도 주목해야 한다. 예들 들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magnalia Dei)를 찬양하는 136편은 하나님의 창조활동(4-9절), 출애굽(10-15절), 광야행진(16절), 가나안 정복(17-22절)을 회고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조에서 약속의 땅으로 이어지는 육경(Hexateuch)의 신학적 서사성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탄생, 억압과 해방, 광야유랑, 젓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묘사되는 인생의 서사성에 대한 시적 은유의 관점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51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일곱 개의 참회시 중의 하나인 다윗의 대표적인 참회시로 표제어(superscription)가 제시하고 있듯이¹⁷⁾ 이 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역사 이야기(historical narrative)로 구성되어 있는 밋세바 사건(삼하11-12장)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런 후에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지만 한 명의 인간실존으로서 극복하고 해결해야 했던 내적 번민, 즉 양심의 가책과 죄의 문제를 시적-신학적(poetic-theological) 차원에서 살필 때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¹⁸⁾

16) 왕대일, *읽글*(2013), 65.

17) 시편은 최종편집 완결 이후 후대 유대교 공동체에 의해 표제어가 부가되었는데, 그 성격은 크게 네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시의 배경을 말해주는 표제어로 대부분 다윗의 시에 붙어있다. 둘째, 시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표제어이다. 셋째, 시의 성격을 말해주는 표제어로(예를 들어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 대체로 순례자의 노래에 첨부되어 있다. 넷째, 시의 음악적 특징과 성격을 말해주는 표제어로 ‘~에 맞추어 부른 노래’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표제어에서 간혹 논란이 되는 것은 첫 번째의 경우처럼 표제어가 미리 시의 성격을 규정해버리는 것 아니냐 하는 질문이다. 독자에게 친절을 베푸는 나머지 독자의 영역을 침범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러나 차일즈(B.S. Childs)가 강조하는 성경의 권위는 마소라 본문(MT)으로서 공동체의 신앙적 이해와 고백까지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표제어는 독자에게 어떤 제약을 주기도 하지만 이해의 단서를 제공해주기도 한다.

18) 일곱 개의 참회시 중 6편, 102편, 143편에는 명시적으로 ‘죄’라는 용어가 등장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시에서 죄 개념을 분석한 논문으로는 안근조, “시편의 죄 개념 재고: 시 6, 102, 143편을 중심으로”.

5) 침묵과 시적 언어에 기초한 해석

시편을 설교자의 본문 메뉴에 넣기 위해서는 시와 침묵, 시편의 기교적 특징 그리고 시편본문의 설교적 이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먼저 시와 침묵의 관계, 시편의 기교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자.

독일에 있는 마리아 쿨름(Maria-Culm) 사원의 제단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새겨져있다. “언어는 성스러운 침묵에 기초한다(Lingua Fundamentum Sancti Silentii).”¹⁹⁾ 그렇다. 참다운 기도의 언어는 현란하고 화려한 수사, 빠르고 유려한 혀 놀림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침묵에 기초한다. 참다운 시 역시 그렇다. 시(詩)라는 글자를 해자(解字) 하면 ‘언어의 사원’(言+寺)이란 뜻을 읽어낼 수 있다. 사원, 수도원의 본질적 언어는 침묵에 기초한다. 이때 침묵이란 깊은 묵상, 명상, 절제, 깊이, 직관 등을 의미하기도 한다. “말은 침묵으로부터 그리고 침묵의 충만으로부터 나온다”, “침묵은 말이 없어도 존재할 수 있지만 말은 침묵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²⁰⁾는 성찰은 깊은 샘에서 물을 길어 올리듯 참다운 시적 언어는 침묵의 깊은 샘에서 길어 올린 언어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래서 철학자 하이데거는 횡달린, 릴케, 트라클 등의 시어들에서 존재의 비밀을 간직한 시원성(始原性)을 찾고자 하였다. 그에 따르면 세계-내-존재(In-der-Welt-sein)로서 현존재에 대한 이해는 세계에 대한 이해와 직결되며, 이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언어이다. 침묵은 존재의 시원성을 드러내는 언어의 토대가 된다. 이점에 있어서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그의 명제는 해명될 수 있

「구약논단」 제33집(2009), 87-107을 보라.

19) 이 구절은 괴테가 그의 일기에서 적어놓은 구절로 그를 통해 알려지게 되었고, 침묵에 관한 탁월한 성찰집인 Max Picard, *Die Welt des Schweigens* (Erlenbach-Zürich: Eugen Rentsch Verlag, 1948)에서 재인용되어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한국어 번역으로는 「침묵의 세계」(최승자 옮김), (서울: 까치, 2001)을 보라.

20) 피카르트, *왓글*, 23, 28.

다.²¹⁾ 따라서 우리는 시들의 모음집인 시편을 읽을 때 먼저 침묵의 세계, 침묵의 시적 언어의 특성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아야 한다.

예언서와 시문학에서는 평행법이 번번이 사용되는데, 반복되는 문장의 경우 중심 구절이나 단어를 축으로 연결하면서 구절이나 단어의 반복을 생략하여 보다 간결하게 시적 운치와 운율을 살리는 기법으로 “중심축/핵심어 패턴”(pivot pattern)으로 명명되곤 한다.²²⁾ 예를 들어 출애굽기 9장 25절, 시편 57편 1절, 98편 5절, 147편 5절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 경우 메시지의 초점이 보다 간결하게 부각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시와 침묵의 관계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주목해야 할 것은 히브리 시들이 갖는 운율적 특성과 비유, 메타포, 그리고 반복과 대칭을 통해 드러내는 시적 구조 등에 대한 이해이다. 시편 전체의 서시(序詩) 격인 1편을 읽어보아도 그 필요성은 쉽게 이해된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대조시켜 진정한 복에 대해 말해주는 1편은 “복 있는”(אֲשֶׁר־אֵשֶׁרֶה/아쉬레)으로 시작하여 “망하리로다”(תֹּבֵעַ/토베드)로 끝나는데, 히브리어 첫 자음 ‘알렐’으로 시작하여 끝 자음 ‘타우’로 끝을 맺는 시적 기교를 보여준다. 그리고 중간에 의인은 견고와 번창의 상징인 시냇가의 “나무”(עֵץ/에쯔)로, 악인은 비산(飛散)의 상징인 바람에 나는 “겨”(קָץ/모쯔)에 비유된다.²³⁾ 내용면에서 상반되는 <아쉬레>²⁴⁾와 <토베드>, 운율과 음성적

21) 하이데거는 존재의 비밀을 시적 언어의 시원성을 통해 드러낸 시인으로 활동한 릴케, 게오르케, 트라클, 헤벨에 주목하여 존재와 언어의 관계에 대해 논한 바 있다. 이에 관한 상세한 논구는 그의 글 “Das Wort”, “Die Sprache im Gedicht”, “Der Ursprung des Kunstwerkes”에 잘 표명되어 있는데, 이를 오병남/민형원이 번역한 『예술작품의 근원』(서울: 경문사, 1979)과 이수정, 『하이데거: 그의 물음들을 묻는다』(서울: 생각의 나무, 2010), 407-438을 보라.

22) “중심축/핵심어 패턴”에 관한 상세한 개념과 논의를 위해서는 Nathan Klaus, *Pivot Patterns in the Former Patterns*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9)를 보라.

23) 이러한 시적 특징은 다음 문헌들에서도 부분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김정우, “시편 설교를 위한 방법론”, 목회와신학 편집부 엮음, 『시편: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서울: 두란노 아카데미, 2008), 102; 김창대, 『율글』, 61, 64.

24) <אֲשֶׁר־אֵשֶׁרֶה>는 ‘화 있을지어다’(<יָיִן>)와 대극을 이루는 공식어투(formula)로 1권과 5권에서 집중적으로 언급된다. 1권에 9번(1:1; 2:12; 17:5; 32:1, 2; 33:12; 34:8; 40:5; 41:1), 2권에 1번(65:5), 3권에 5번(73:2; 84:5, 6,

인 면에서는 유사한 <에뜨>와 <모뜨>를 대비시켜 시적 묘미를 더할 뿐만 아니라 내용을 보다 선명히 드러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듯 시편의 시를 설교본문으로 정하고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언어와 침묵, 시의 기교와 특징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시편의 다양한 기교적 특징은 많은 학자들의 노력으로 충분히 드러나 있다.²⁵⁾

6) 맥(脈)을 따라가는 궤도적 해석

시편을 보다 전체적으로 이해하면서도 개별 시들에 공통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강조점과 정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편을 관통하는 맥을 따라 읽는 방법이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몸에는 여러 개의 맥이 있듯이 시편 전체에도 몇 개의 중요한 맥이 있다. 시편에 흐르는 중요한 맥 중의 하나는 ‘밤에서 아침으로’ 흐르는 맥일 것이다. 창세기의 천지창조 기사에서 눈에 띄는 것 중의 하나는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이다. ‘아침이 되고 밤이 되니’ 하루가 아니라 그 반대로 날짜를 세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날짜 셈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나 창조기사 자체가 창조의 서광(曙光)이 어린 장엄한 예전적 선언문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감안할 때²⁶⁾ 절망에서 희망으로, 아픔에서 회복으로, 고통에

12; 89:16), 4권에 2번(94:12; 106:3), 5권에 10번(112:1; 119:1, 2; 127:5; 128:1; 137:8, 9; 144:15a, 15b; 146:5) 등장한다. 이 통계는 김창대, *윳글*, 55 n. 2와 김이곤, 「시편」(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166에도 수록되어 있다. <아쉬레>는 일반적으로 복을 나타내는 <브라카>의 의미와 달리 이해되고 있다. <아쉬레>의 의미에 관한 간략한 정의를 위해서는 박동현, 「아쉬레 하이쉬」(서울: 비블리카 아카데미아, 2008), 37; 차준희, 「시편신앙과의 만남」(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76을 보라.

25) 이에 관한 유용한 자료로는 김이곤, “히브리시 운율양식에 나타난 형행법”, *문회석* 편, *오늘의 시편연구*(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3), 31-46; 같은이, 「시편 시문학의 신학」(서울: 한들출판사, 2006), 40-49를 보라. 후자의 해당 부분은 그의 주석서 「시편」(43-52쪽)에 재수록 되어 있다.

26) Bruggemann은 창세기 1장 1절-2장 4절의 천지창조 기사를 주전 6세기 바빌론 포로공동체에게 주어진 시적 내러티브(poetic narrative)로 예전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그의 *Genesis* (Atlanta: John Knox Press, 1982), 22를 보라.

서 기쁨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을 상징하는 셈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²⁷⁾

‘밤에서 아침으로’의 긍정적인 삶의 이해는 시편 탄원시들(laments)에 잘 나타나 있다. 150편 중 70편 이상이 탄원시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이 시들은 주로 “어찌하여”, “언제까지”냐고 반문하는 고통스러운 탄식의 수사를 전반부에 내세우고 있다. 그러다가 중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은 변함없다는 확신과 창조주 하나님과 만군의 여호와에 대한 확신으로 인해 급격한 분위기 전환이 이루어져 마침내 감사와 찬양, 공적 서원 등으로 끝을 맺는다. 단조에서 장조로의 분위기 전환이 이루어진다.²⁸⁾ 탄원시의 이러한 이조(移調)는 창세기의 천지창조 기사의 정신에 잘 부합한다.

또 다른 맥으로는 ‘이념을 넘어 영광’으로 나아가는 맥을 짚을 수 있다. 시편의 각 권은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송영(doxology)으로 끝을 맺고 있다.²⁹⁾ 특별히 150편은 그 자체가 대송영(great doxology)을 이루고 있다. 각 권 안에 인간의 다양한 욕구를 담은 주장과 생각이 내포되어 있지만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으로 끝을 맺고 있다. 이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만은 아니

27) Brueggemann은 이러한 이조(移調)를 시편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그의 *The Psalms and the Life of Faith* (Minneapolis: Fortress, 1995), 67-83을 보라.

28) ‘ki’로 유도되는 분위기 전환으로 요인으로 가장 빈번히 언급되는 것은 <헤세드>이다. 이에 관해서는 이성훈, “개인 탄원시에 있어서 찬양으로의 변화에 대한 해석상의 형태로서의 하나님의 헤세드 개념”, 『구약논단』 9집 (2000), 191-210을 보라. 그런가 하면 김이곤은 “만군의 여호와”에 대한 확신을 분위기 전환의 또 다른 핵심 요인으로 본다. 그의 박사학위 논문을 출판한 *The Rapid Change of Mood in the Laments Psalms*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5)를 보라.

29) 제1권: 1-41편/(41:13: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라도. 아멘. 아멘.”)/ 제2권: 42-72편(72:185: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이다. 아멘. 아멘.”)/ 제3권: 73-89편/(89:52: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이다. 아멘. 아멘.”)/ 제4권: 90-106편/(106:48: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이다. 모든 백성들이 아멘 할지이다. 할렐루야.”)/ 제5권: 107-150편: 제5권의 마지막 절에는 송영이 들어있지 않다. 그 이유는 150편 전체를 시편 전체에 대한 송영으로 간주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6절(“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이다. 할렐루야.”)을 송영으로 보기도 하지만 이 구절에는 다른 모든 송영에서 들어있는 있는 “아멘”이 들어있지 않다. 그러므로 1~6절로 이어지는 연속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다. 브루그만이 깊이 있게 논했듯이 ‘이스라엘이 세계에 대한 희망을 상실한 상태에서도 영광을’(“doxology without reason: the loss of Israel’s world of hope”), ‘슬픔과 고통의 시간이 아직 지속되는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doxology inside the claims of time and sorrow”) 돌리고 있음을 시편은 말해주고 있다.³⁰⁾ 이렇듯 송영은 개인을 공동체에, 인간을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기능을 담당한다.³¹⁾

시편에는 이외에도 다른 맥들이 존재하는데, 놓치지 말아야 또 하나의 맥은 ‘말씀에서 감사’로 이어지는 맥이다.³²⁾ 시편 1편은 전형적인 토라시로 의인이 받을 복과 악인이 받을 보응을 대비시키고 있는데, 토라는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며, 의인이 의지하는 마지막 보루이다. 그러므로 말씀은 궁극적으로 감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시편은 대송영의 찬양시(150편)로 대미를 장식하는데, 시편에서 찬양은 감사의 동의어로 사용되곤 한다. 찬양시와 감사시는 내면적으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으며, 찬양시와 감사시는 탄원시와도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³³⁾ 탄원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에는 신뢰시가 있다. 이 신뢰의 핵심 요인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 존재의 기원으로서의 창조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 대한 신학적 모티프가 작용하고 있다. 탄원-신뢰-감사/찬양은 시편을 관통하는 핵심 동맥이다.

이외에도 시편을 관통하는 다른 맥들이 내재되어 있을 것이다. 그것은 전적으로 독자에 의해 새롭게 발견될 수 있는 감추어진 맥이라 할 수

30) W. Brueggemann, *Israel’s Praise: Doxology against Idolatry and Ideology* (Philadelphia: Fortress, 1988).

31) W. Brueggemann, “Bounded by Obedience and Praise: The Psalms as Canon”, *JSOT* 50(1991), 63-92; 차준희, *율글*, 66.

32) 왕대일은 「시편사색, 시편 한 권으로 읽기」에 “토라로 토다를”이라는 부제목을 붙이고 있는데, 의미 있는 설정으로 어느 면에서 맥의 의미와 중첩되는 점이 있다.

33) B. W. Anderson, *율글*, 56-59.

있다. 개별적인 시 한편 한편에 나름의 시맥(詩脈)이 있고, 시들이 모여 이루는 다섯 권의 각권에도 시맥이 있고, 최종적으로 한 권의 시선집인 시편을 관통하는 시맥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시편을 흐르는 시맥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구약성서 전체에 두루 흐르고 있는 여러 다양한 맥들 과도 조화를 이루고 있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한 상세한 고찰은 본고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기에 후속 연구 또는 다른 연구자의 연구에 맡겨둔다.

4. 나가는 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엡5:19-21)고 권면하였다. 여기서 “시”는 프살모스(psalms)로 구약의 시편을 의미한다. 시편은 가정교회 시대부터 예배와 실생활에 빈번히 활용되었다. 그와 같은 전통은 현대교회에서도 마땅히 계승되어야 할 아름다운 전통이다. 특별히 설교자가 그 전통을 이어받아 시편을 설교본문 메뉴에 적극적으로 올리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은 신앙적, 신학적 책무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데, 첫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편의 시적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은 시편을 해석하는 다양한 접근법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고전적인 접근법이라 할 수 있는 양식적 분류에 의한 시의 성격과 삶의 정황 이해, 주제적 접근에 의한 상호연결성의 추구, 시적 서사성과 역사적 맥락의 연결성에 의한 배경적 이해, ‘한 권의 책으로서의 시편’의 전체적 구조와 신학적 주제를 다각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시적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시적 설교란 앞에서 언급했듯이 침묵의 언어를 바탕으로 간결하면서도 깊이와 여운이 감도는 시적 언어를 구사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침묵과 언어의 관계, 침묵과 시적 생략의 관계 등에 대한 선행적 이해가 요구된다. 나아가 시적 언어와 사물간의 내적 밀착관계도 중요하다. 자연과 사물의 시적 은유와 비유를 통한 예수님의 설교와 가르침에서 그 전범(典範)을 찾을 수 있듯이.

셋째, 개별 시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소맥(小脈)을 찾는 노력과 더불어 개별 시들이 모여 각권을 이루고, 다섯 권의 책이 한 권의 책으로 읽히는 연결성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시편의 대맥(大脈), 나아가 구약성서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는 다른 대맥과의 유기적 연결성을 찾아 성찰하여 설교에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러한 다양한 접근들을 상호 보충적으로 적용하고 활용하면서 시편 본문을 설교 메뉴에 올릴 때 보다 넓고 깊은 설교의 세계를 펼칠 수 있을 것이다.

5. 참고문헌

- 김이곤, 「히브리시 운율양식에 나타난 형행법」, 문희석 편, 「오늘의 시편연구」(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3.
- ___, 「히브리 시문학의 신학」(서울: 한들출판사, 2006).
- ___, 「시편 I」(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5).
- 김정우, 「시편 설교를 위한 방법론」, 목회와신학 편집부 엮음, 「시편 I: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서울: 두란노 아카데미, 2008).
- 김창대, 「한 권으로 꿰뚫는 시편」(서울: IVP, 2015).
- 김태경, 「시편연구사-1990년 이후 현재까지-」, 「구약논단」 제53집(2014), 325-354.

- 막스 피카르트, 「침묵의 세계」(최승자 옮김), (서울: 까치, 2001). 원
제 Picard, Max., *Die Welt des Schweigens* (Erlenbach-
Zürich: Eugen Rentsch Verlag, 1948).
- 말틴 하이데거, 「예술작품의 근원」(오병남/민형원 공역), (서울: 경
문사, 1979). 원제 Heidegger, Martin, *Der Ursprung des
Kunstwerkes* (Vittorio Klostermann, 1952, 2. Aufl.).
- 박경철, 「한 권으로 읽는 구약성서, ‘삶의 자리’(Stiz im Leben)에서
‘책의 자리’(Sitz im Buch)로! - 구약성서, 그 최종형태의 새로
운 신학적 의미」(오산: 한신대학교 출판부, 2010).
- 박동현, 「아쉬레 하이쉬」(서울: 비블리카 아카데미아, 2008).
- 박중수, 「성서적 설교의 이론과 실제」(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 안근조, “시편의 죄 개념 재고: 시 6, 102, 143편을 중심으로”, 「구약논
단」 제33집 (2009), 87-107.
- 왕대일, 「시편사색, 시편 한 권으로 읽기」(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3),
- 왕대일/이성민, 「구약설교 패러다임: 구약학자의 설교이해, 설교학자
의 구약해석」(서울: 감신대성서학연구소, 2002).
- 앤더슨. B.W., 「시편의 깊은 세계」(노희원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
회, 1997). 원제 Anderson, Bernard W., *Out of the Depths:
The Psalms Speak for Us Today* (The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74).
- 은준관, 「실천적 교회론」(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 이성훈, 「개인 탄원시에 있어서 찬양으로의 변화에 대한 해석상의 형
태로서의 하나님의 헤세드 개념」, 「구약논단」 9집 (2000), 191-
210.
- 이수정, 「하이데거: 그의 물음들을 묻는다」(서울: 생각의 나무, 2010).
- 이은애, 「시93-100편의 야훼-왕 찬양시의 구조와 역할」, 「구약논단」

- 제33집(2009), 67-86.
- 이환진, “시편 속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다: 시편의 구성과 그 주제”, 「신학과 세계」 봄호(2017), 7-57.
- 맥캔, J. 클린턴/제임스 C. 하우엘, 「시편설교-예배 신학 실제」 (김윤규 옮김), (서울: 동연, 2012). 원제 McCann Jr. J. C./Howell, James C., *Preaching the Psalms* (Nashville: Abingdon Press, 2001).
- 클레멘츠, R. E., 「구약성서 해석사-벨하우젠 이후 100년」 (문동학/강성열 옮김), (서울: 나눔사, 1988). 원제 Clements, R. E., *One Hundred Years of Old Testament Interpretation*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6).
- 차준희, 「시편신앙과의 만남」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 프레드릭 C. 프루스너, 「구약성서신학사」 (장일선 옮김), (서울: 나눔사, 1991). 원제 Hayes, John H./Prussner F., *Old Testament Theology: Its History and Development* (Atlanta: John Knox Press, 1985).
- Alter, Robert, *The Art of Biblical Poetry* (New York: Basic Books, 1985).
- Anderson, Bernhard W., *Out of the Depths: The Psalms Speak for Us Today*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4).
- Brilioth, Yngve, *A Brief History of Preaching* (Philadelphia: Fortress, 1965).
- Brueggemann, W., “Psalms and the Life of Faith: A Suggested Typology of Function.” *JOT* 17 (1980), 3-32.
- ___, *Genesis* (Atlanta: John Knox Press, 1982).
- ___, *Israel's Praise: Doxology against Idolatry and Ideology* (Philadelphia: Fortress, 1988).

- ___, "Bounded by Obedience and Praise: The Psalms as Canon."
JSOT 50 (1991), 63-92
- ___, *Praying the Psalms* (Winona, Minn.: Saint Mary's Press,
1993).
- ___, *The Psalms and the Life of Faith*. (Minneapolis: Fortress,
1995).
- Clements, R. E., *One Hundred Years of Old Testament Interpretation*(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6).
- Garvett, Sandra L. & et al, *An Introduction to the Hebrew Bible: A Thematic Approach* (Louisville, Kentucky: WJK Press, 2008).
- Gunkel, H., *The Psalms: A Form-Critical Introduction* (trans. Macon, T.M. Horner), (GA: Mercer University Press, 1967).
- Hayes, John H(ed.), *Dictionary of Biblical Interpretation* (Nashville: Abingdon Press, 1999).
- Holland, Dewitte T., *The Preaching Tradition* (Nashville: Abingdon Press, 1980).
- Kim, Ee Kon, *The Rapid Change of Mood in the Laments Psalms* (Seoul: Korea Theology Study Institute, 1985).
- Klaus, Nathan, *Pivot Patterns in the Former Patterns*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9).
- Knierim, R, *The Task of Old Testament Theology: Substance, Method, and Cases*.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1995).
- Levine, Raphael H., "Preaching in the Jewish Tradition", Ralph G. Turnbull(ed.), *Baker's Dictionary of Practical Theology*

- (Grand Rapids, Michigan: Baker Books, 1967).
- Mowinckel, Sigmund, *The Psalms in Israel's Worship* (trans. D.P. AP-Thomas), (New York Nashville: Abingdon Press, 1962).
- Routledge, Robin, *Old Testament Theology: A Thematic Approach*.(Westmont IL: InterVarsity Press, 2013).
- Seybold, Klaus/Erich Zenger(eds.), *Neue Wege der Psalmenforschung*.(Freiburg New York: Herder, 1994).
- Terrien, S., *The Psalms: Strophic Structure and Theological Commentary*(Grand Rapids: Eerdmans, 2003).
- Watts, James W., *Psalms and Story: Inset Hymns in Hebrew Narrative*(Sheffield: JSOT Press, 1992).
- Wilson, Gerald H., *The Editing of the Hebrew Psalter* (Chico, CA: Scholars Press, 1985).
- Zenger, E., *The Composition of the Book of Psalms* (Leuven Walpole, MA: Peeters, 2010).

검색어

이야기 설교

시맥(詩脈)

시편의 통일성

시적 서사성

양식

주제적 접근

궤도적 접근

www.kci.go.kr

Some Directions of Interpreting the Psalms for Preachers

Myung-Soo Suh, Ph.D.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Hyupsung University

The book of Psalms in the Bible is very unique. Ultimately the Bible is the Words of God given to his people from heaven to the earth. But the psalms contain various human voices from the earth to heaven/God. For this reason, it can be said that the Psalms are 'theopoetry.' The book of Psalms is a very useful text in and for christian daily life and churches. It is a kind of the standard text in Christian worship. However, in spite of it's utility, many preachers are apt to choose their sermon texts outside the book of Psalms. Thus, a new try is necessary for helping preachers to choose the Psalms as their sermon text.

This paper starts from this issue. At first, it makes a summary of the biblical foundation of preaching and its traditions. Prophetic preaching, liturgical preaching, and cultic-prophetic preaching are typical preaching in ancient Israel. After the summary of preaching tradition, this paper examines some approaches to reading and interpreting the Psalms such as Gutting(genre/form) analysis, relationship between poetic words and silence, finding poetic narrativity in the Psalms, thematic approach, and so on.

Finally, this paper suggests a possible approach to the psalms, that is, a reading of the Psalms according to its "mac"(脈 = pulse), which can be understood in various contexts. In the poetic text, there is

a poetic "mac"(脈). In the five books of the Psalm, there are various poetic "mac"(脈)s. Finally, in the book of the Psalms as a whole, there is a great "mac"(脈) which consists of various sub-"mac"(脈)s. All of these "mac"(脈)s correspond to the "mac"(脈) of the Old Testament which penetrates the Bible. In reading the Psalms, finding "mac"(脈)s can be another key. The "mac"(脈) can be compared to the orbit. Various "mac"(脈)s beat and move in the Psalms just as planets move in their spatial orbits. So the approach according to the "mac"(脈) can be coined as the orbital approach.

Keywords

narrative preaching
poetic 'mac (pulse)'
unity of the psalter
poetic narrativity
Gattung (genre/form)
thematic approach
orbital approach

- 투고일: 2017년 4월 16일
- 심사일: 2017년 4월 22일
- 게재 확정일: 2017년 5월 20일